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주은행

2. 조치일 : 2017. 1. 24.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임 직 원	해당사항 없음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3건)

(1)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마련 및 시행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바젤Ⅲ 추가자본 규제 적용 대상 은행에 해당되어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자산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2016.6월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12.77%) 및 보통주자본비율(8.52%)이 하락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중 최하위 수준에 있는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16.9월말 현재 중소기업 원화대출 잔액은 2조 3,221억원으로 은행 원화대출의 57.2%를 차지하며, 2014년말(1조 7,401억원) 대비 33.4%(5,820억원)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26%로 지방은행 평균(1.08%)보다 높은 수준이며, 도소매업 등 경기민감업종대출이 1조 6,286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70.0%를 차지하는 등 여신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기능 및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경영계획 수립시 적정 가용자본 산출 필요

2016년도 은행의 경영계획 수립시 발행 성사여부가 불확실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예정액(300억원)을 가용자본에 합산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였으나, 동년도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가중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자본비율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경영계획 수립시 리스크 한도를 적정 가용자본 내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이 요망됨